

美 쇼핑몰 '아마존'에서 전남 농수산물 판다

전남도, 식품전문 브랜드관 개장
김·유자차 등 18개 품목 입점
해조류 등 34개 품목 테스트 중
연 1000만달러 수출효과 기대

대한민국 맛의 중심이라는 'The Kitchen of 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친환경 웰빙' 브랜드관임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에 'Jeollanamdo'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6월 최종 상표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브랜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미국 내 아마존 판매대행 전문기업인 Kreassive LLC(대표 Sean Chang)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운영사는 입점품목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비롯 현지 배송, 고객·재고관리, 추가 주문 등 수출기업의 미국 내 현지 법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김과 유자

차, 유기농 표고, 고구마말랭이, 건어물 스낵, 수세미도라지차, 청국장 등 18개 품목이 미국 온라인 시장 트렌드에 맞도록 현지화 작업을 거쳐 브랜드관에 입점했다. 또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전남 대표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중인 제품 중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조류와 매실진액, 도라지배즙 등 34개 품목을 발굴해 입점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최근 K-POP, K-MOVIE 등 인기에 힘입어 K-FOOD도 관심을 끌고 있어 미국인들이 한국 먹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깨끗한 환경에

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집중 마케팅한다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남도는 김, 전복, 유자, 건어물, 매실, 고구마, 장류 등 지역을 대표할 7개 품목을 '스타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미국 시장에 맞게 최적화 시켜 오는 11월 초까지 아마존에 런칭할 계획이다. 스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당 월 5만 달러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최대 1500만 원을 들여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면서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제품 개발과 현지화에 나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어촌을 둔 전남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9일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창립했다. <완도군 제공>

전남 16개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

초대 회장에 신우철 완도군수
어촌을 둔 전남 16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창립했다. 이들 단체장은 어촌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 16개 어촌지역 시장·군수는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준비해 온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창립했다. 애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하다가 이날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초대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임시회장으로 활동하며 협의회 창립을 이끈 신우철 완도군수가 선출됐다. 부회장으로는 송기근 고흥군수가 선출됐다. 이들 단체장은 창립총회에 이어 이날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실무위원회에서 건의한 17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해양수산 사업 도비 지원을 상향 조정' ▲여수시 '해운법 시행규칙 및 여객운임 지원율 조정' ▲순천시 '연안어선 감척사업 개선' ▲고흥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확대' ▲보성군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 간소화' ▲장흥군 '굴 패각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강진군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해남군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지원사업 확대' ▲무안군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 요금 적용' ▲영광군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북한 수산업 현황 조사' ▲함평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영암군 '어선의 기관·장비 보급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완도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신사업 공동 대응' ▲완도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신사업' ▲진도군 '국립공원 내 낚시 행위 허가 제도 개선' ▲진도군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신안군 '출어선 해양환경개선분담금 징수' 등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전남도, 고흥 해역서 적조방제 모의 훈련



9일 고흥군 금산면 우두리 해역에서 '민·관·경 합동 적조방제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9일 고흥군 금산면 우두리 해역에서 적조 피해예방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민·관·경 합동 적조방제 모의훈련'을 펼쳤다. 이날 모의훈련은 고흥군 금산면 우두리 해역에서 이뤄졌으며, 전라남도를 비롯 고흥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해양경찰서, 고흥군수협, 어업인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드론과 기술지도선을 이용한 우심해역 예찰을 비롯해 정화선 2척과 어업지도선 4척, 해경 방제선 2척, 고흥군 전북양식협회 어선 24척 등 총 32척을 동원한 황토 살포, 수류 방제 후 가두리어장에 양식 중인 어류 긴급방류 등에 대한 훈련이 이뤄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SRF발전소 환경영향조사 법적 기준치 이내 검출

민관거버넌스위원회 최종 보고회
손실보상·주민수용성 조사 산적
주민 반대로 멈춰섰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고흥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는 10일 전남도청에서 환경영향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총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대기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악취는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소음은 소음·진동 시험 기준을, 폐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SRF는 고흥연료제품 품질시험 분석방법이 준용됐다. 측정 장소는 대기는 사업장 주변 13개 지점, 굴뚝은 1개 지점, 악취는 사업장 부지 경계 및 주변 지역 4개 지점, 소음은 사업장 부지경계 3개 지점, 폐수는 사업장 폐수저장조 1개 지점, SRF는 연료저장동 1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66개 항목 모

두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RF 열병합발전시설 가동 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데이터로 나주지역 환경영향을 예측한 결과, 대기질은 '환경기준 대비 항목별 기여율'이 최저 0.001%, 최고 0.14%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여율은 환경기준 대비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의 비율이다. 복합악취 영향 예측 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조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자원통신부, 전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9월 26일 합의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거버넌스는 환경영향조사→손실보전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주민여론·공론조사)를 거쳐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RF발전소와 LNG발전소 설비를 모두 갖춘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두 발전소를 모두 돌릴지, SRF발전소를 폐쇄하고 LNG발전소만 가동할지 결정한다. 혁신도시 주민 선택에 따라 발전소 운영사인 한남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27일 체결한 거버넌스 합의서에서 SRF발전소 폐쇄를 대비한 손실보전방안을 정부, 전남도, 나주시, 한남이 주민 수용성 조사 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악 오룡지구 공동주택 첫 입주

3000세대 연말까지 입주 계획
썬큰형 도보 체계란 일반도보보다 2.4~2.8m 낮게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오룡지구 내에는 도시 곳곳을 도보로 연결시키는 총연장 1.8km 길이를 적용해 국내 최대 규모다. 선린형 도보체계 양옆으로 녹음, 단풍, 꽃 등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원 숲이 조성되며, 이중 1km 구간이 1단계 준공과 함께 공개된다. 이곳에는 300여주의 펜백나무가 식재된 편백 숲, 14만본이 식재된 맥문동 군락지, 7200㎡의 잔디마당이 조성됐다. 전남도청 이전 사업으로 추진된 남악신도시의 마지막 사업인 오룡지구(면적 280만㎡)에는 오는 2024년까지 모두 5280여원을 투입될 예정으로, 9800세대 약 2만5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